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7년 4월 1일 제42호



각영범의 토크스토크 **오토바이 탄 남자가 자전거 탄 여자를 그만...**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반응이 뜨거웠다. 송해고, 송승기의 송승블루(?)의 로맨스보다 이 작품을 만든 스태프들이 부러웠다. 사전제작이라 촬영이나 편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시샘까지 하며 바로 엿그제 같았던 작업현장을 떠올렸다. 재촉을 해야 그나마 나오는 쪽대본을 받아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날밤을 세워 촬영을 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어른거린다. SBS도 '달의 연인 보보경심 러에 이어 지금 사임당 빛의 일기를 사전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오래전 정착된 드라마 사전제작이 뭐든 계나마 우리도 시동을 걸어 드라마 제작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런데 사전제작 드라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암 투병 중인 주인공을 살려라, 두 연인을 헤어지게 하지 말아라 등의 여론을 보아가며 대본을 쓰는 효용성이나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시의성 등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마도 이런 우려는 처음부터 쪽대본 받아 날밤 촬영을 배운 한국형 드라마 제작 전통고수파들이 은근히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닌 거 같다. 아무리 시간이 쫓긴다고 해도 어느 감독이든 자신의 드라마를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어서 대중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여유 있게 사전제작을 한다고 해서 모두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2003년 4월에 방송된 SBS 드라마 이병헌 송해고의 '롤인'은 역설적으로 쪽대본이 만들어낸 최고의 히트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시 두팀으로 나누어 촬영을 해오던 드라마 제작도 섭지코지 현장에 있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메일로 날아오는 쪽대본을 받아 촬영을 하다가 다시 쪽대본이 오길 기다려야 했고 대본이 늦을 수록 스토리의 진가를 발휘하는 최완규 작가는 제 주도팀이 촬영하는 동안 서울 촬영팀에게 쪽대본을 넘기는 식으로 제작을 했다. 당일 밤에 나가야 할 드라마가 제주도의 푸른 밤에 취해 잠을 자고 있으니 당시 유철용 감독은 피가 말라 수혈을 하고 명작은 시간에 쫓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태어나고 환경이 열악할수록 연출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요즘도 촬영을 하지 못해 드라마가 평크나느 꿈을 자주 꾸다. 시간에 쫓겨만 든 드라마의 트라우마일 것이다. 그 꿈 속 드라마에 나타나는 1996년 2월 어느 날 트라우마속으로 들어가 본다. 가부장적인 권위로 팍팍 동진 구두쇠 노인 불정민네 가족이 펼치는 생활속의 이야기를 아기가 가리며 대본을 쓰는 효용성이나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시의성 등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마도 이런 우려는 처음부터 쪽대본 받아 날밤 촬영을 배운 한국형 드라마 제작 전통고수파들이 은근히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닌 거 같다. 아무리 시간이 쫓긴다고 해도 어느 감독이든 자신의 드라마를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어서 대중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여유 있게 사전제작을 한다고 해서 모두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2003년 4월에 방송된 SBS 드라마 이병헌 송해고의 '롤인'은 역설적으로 쪽대본이 만들어낸 최고의 히트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시 두팀으로 나누어 촬영을 해오던 드라마 제작도 섭지코지 현장에 있는 배우와

사우회동정



엄광석(보도) 지난 3월 언론계와 정계 등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명사미술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엄사우는 오는 가을 전시회를 위해 작품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중환(제작)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학로 청운예술극장에서 '작가찾는 6인발' 연극을 연출 했다. 이 작품은 루이지 피란델로 원작으로 희곡에 극중극을 삽입한 실험극의 효시다.



김정택(악단장) 지난 1월 16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자선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김사우는 이날 자선행사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 돕기 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승열(보도) 지난 달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 했다. 이사우는 SBS 퇴직 후 하이트 진로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지난해 퇴임했다.



차성모(제작) 지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불교성지순례회가 마련한 인도성지 순례에 참가 했다. 차사우의 부부동반으로 함께한 인도성지 순례에서 인도의 저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영돈(제작) 지난 3월 9일부터 케이블 TV 법률방송에서 <이영돈 PD 변호사를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사우는 이 프로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협찬금 내신 분>



양문규 (40만원) 이상규 (30만원) 윤희훈 (30만원) 김용정 (30만원) 이시건 (10만원) 강찬원 (20만원)



네트즌 사이에서 제 역할 못하는 기자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참 저널리스트가 없음을 빗댄 뜻이 담긴 말이다. 현재 탄핵인용이 된 날 이 뉴스를 전하는 어느 기자가 '이제 '기뻐기' 라는 비난을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 언론이 터트리지 않았으면 수면에 떠 오르지 않았을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낸 기자의 자부심이 있을까? 아니 그동안 애완견 재봉에 빠져 감시권을 유지시킨 부끄러움의 속내였을까?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으로 밎고 싶다.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떠나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부끄러운 그날, 우리 시대의 지성인, 참 언론인 고리영희 선생님이 말한 기자정신이 떠 올랐다. '언론인은 가장 정직한 사관이고 공정한 심판관이며 언론이 약자를 배신하면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弄)인이다. 기자는 단의 진실을 밝혀낸 기자의 자부심이 있을까? 아니 그동안 애완견 재봉에 빠져 감시권을 유지시킨 부끄러움의 속내였

2017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기간 : 2017. 3. 2 ~ 12. 31 - 검진 기관 (7개 병원, 전년과 동일)
 - 강북삼성/서울성모/세브란스/여의도성모/이대목동/일산병원/하트스캔

SBSA&T TV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 미 술** 무대디자인, 소품, 의상, 미용, 조명, 그리고 비주얼 그래픽으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미술을 제공합니다.
- 영 상** 드라마, 교양, 예능, 영화, 뮤직비디오, CM, CF, PR 등의 영상과 SBS 보도영상 취재, NLE 편집, Ingest 등 보도 영상에 대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 술** 방송 전문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UHD 장비운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 사 업** 방송 미술, 영상, 기술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시스템 구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적의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전화 (02)2113-630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목동 방송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111 (SBS 일산 방송센터)

무대디자인 / 소품 / 의상 / 미용 / 조명 / 3D 컴퓨터 그래픽 / 비주얼 디자인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해외 위성 송수신 / 방식변환 / 중계차 임대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행사 이벤트 사업 / 방송시설 SI사업

활기피는 협찬금 기부



▲ 봄 빛을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사진/민대식 사우 시빅총명 사우

사우회 발전을 위해 사우들이 기부하는 협찬금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회가 집계한 협찬금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사우들이 기부한 협찬금은 8148 만 원에 이른다. 이는 사우들이 한해 평균 1 천6백 여만 원의 협찬금을 기부한 것으로 금년말에 1억을 돌파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들이 협찬금은 자녀들의 결혼과 부모님 부음 등 경조사에 따른 감사 표시로 기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우 본인이 교회를 맞아 기부하는 등 협찬금 기부의 뜻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우들의 협찬금 기부는 사우회 자원봉사 기반 조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장미꽃 피는 SBS 대선 방송

SBS는 5월9일 대선에 앞서 시청자에게 다채로운 선거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17-국민의 선택' 대선 온라인 특별페이지를 열고 본격 대선 선거 방송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3월14일 SBS 홈페이지에 개설된 대선 온라인 특별 창에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정보와 자체 여론조사 추이, 'SBS 빅-지수' 추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SBS 빅-지수'는 대선 주요 후보들의 관심도, 호감도, 주목도 등을 알아보는 빅데이터 통합 지수로 매주 화요일 SBS '8뉴스'를 통해 방송된다. 특히 대선 특별 페이지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청자 참여 콘텐츠다. '선거 인증전'에 선거 약속! 투표율100%의 그날까지' 라는 모토를 담은 '아이 보트 챌린지'와 스마트폰 셀카카메라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등이다. 매년 선거방송시 화제를 불러 일으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SBS 선거방송, 이번 장미대선 선거방송에서도 SBS가 그동안 축적한 다채로운 자체 제작 콘텐츠와 시청자 참여코너, 뉴미디어를 넘나드는 생생계 등 선거방송 노하우로 명성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봄처럼 약동하자
 사우회 2017년도 정기총회

SBS 사우회 2017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5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2016년도 수치결산 승인과 2017년도 예산 승인 등의 의안을 차례로 처리하고 사우회 2기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를 충실하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 했다. 김수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우들의 하나된 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우회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자립

기반의 터를 현 집행부가 반드시 닦아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김희남 경영본부장은 국정농단 후유증, 광고시장의 위축, 중국의 한한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고 사우회 2기 집행부의 마지못해 임기를 충실하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 했다. 김수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우들의 하나된 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우회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자립



◆ 너. 심. 나. 심. ◆

▲ 2017년도 정기총회 성료, 사우회 가족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제자리니 해법은 알뜰 살림살이뿐. 이제 그대를 허리미 줄라매기 달인으로 인정하노라!

▲ 새봄은 동호회의 계절, 골프회, 요산요수회... 살랑 살랑 봄 바람 쐬며 겨우내 움추린 기지가 펴니 힘이 솟아 오르네, 과연 봄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나지 마시길

▲ 활기피는 협찬금 기부, 설마 대기업 강요해 받은 제단 기부금은 아니겠쥬, 사우들의 기부정진은 회사에게 배운게 아니라 빌 게이츠에게 배운 역사 품격이 달라.

▲ 2017년 건강검진 시작, 차일피일 하면 강요해 받은 제단 기부금은 아니겠쥬, 사우들의 기부정진은 회사에게 배운게 아니라 빌 게이츠에게 배운 역사 품격이 달라.

준회원을 환영합니다

정년퇴임 앞둔 안식년 사우 대상

사우회는 퇴임을 앞두고 안식년에 들어간 분사 사우들에게 사우회 준 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사우회의 이같은 방침은 분사의 안식년제 시행에 따라 정년1년전에 퇴임식을 갖는 후에 사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본사의 심의팀 이포호 선임 매니저와 윤리경영팀 권동직 선임 매니저가 안식년 정년퇴임식을 한데 이어 광고운영팀 김혜리 사우

도 이달 초 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등 상당기에 10 여명의 사우들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사우회는 안식년을 맞아 자기계발 등 인생 2막 준비로 바쁜 가운데에도 사우회 활동을 희망하는 후배 사우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초청해 사우회와 교감을 나눌 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사우회보 투고를 기다립니다 ※

SBS 사우회보는 사우들의 오프라인 공간 건강 비법 등등 주제와 형식은 자유입니다. SBS 사우회보는 사우들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여행, 인생 2막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의견, 취미생활, 자신의 사유 여러분의 투고를 학습고대 하겠습니다.

동호회 봄 속으로

사우회 8개 동호회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봄의 기지개를 폈다. 골프회는 지난 3월 22일 여주 아리지 CC에서 2017 시즌을 여는 멋진 낫을 날렸다. 이날 첫 골프에 참가한 20여명의 사우들은 화기애애한 라운딩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음악동호회는 지난 달 30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김경호 콘서트를 관람하며 봄날의 오후를 만끽했다. 또한 문화예술

동호회는 지난 3월 23일 강남 메가박스에서 화제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영화감상회를 갖고 이달에는 봄 나들이를 겸해 야와 조각공원 관람할 계획이다. 한편 요산요수회는 지난 29일 올림픽 공원에서 몽촌토성산성 어울길 코스를 트레킹하며 한성백제의 체취를 느꼈으며 바둑동호회는 18일 춘계 바둑대회를 개최한다.



글/허인구 사우
(SBS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사장)

카독 세당 훈장이 된 까닭은?

술과 풍류를 좋아해 주 태백으로 불리는 이 백이 어느 날 명성대로 술 한 잔 걸치고 곤하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정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시 한 수를 읊었다. —鳥花間鳴(일조화간명) 새 한 마리가 꽃 사이에서 울고 있네 借問此何時(차문차하시)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 하고 잠시 물어보니 春風語流鶯(춘풍어유앵) 봄바람이 피꼬리와 얘기하고 있네.... 이 백이 술에서 깨어나 피꼬리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봄을 맞이했다는 얘기다. 봄이 오는지 봄날이 가는지 일상의 무심함에서 깨어나지 못해 봄을 느끼지 못하

는 내가 술을 마신 후 깨어나 봄을 느끼다면 허 태백이 될까? 이 백의 이런 한시에 끌려 감성을 살찌우기 위해 고전을 읽었다. 당나라 시성 두보와 시선 이백의 한시를 읊조리며 그 맛을 음미했다. 천년의 역사를 건너 뛰어온 한시는 읽을수록 감동으로 다가와 혼자 느끼기에 아까워서 카독세당 훈장을 자처하고 사우회 사우들에게 매일 '한시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카독으로 배달하고 있다. 고전과 한시를 통해 얻은 삶의 가르침을 사우들과 함께 공유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사실

SBS 사우회 고 윤혁기 고문 1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10일 절두산 성당 납골당에서 열렸다. 천주교예배의식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고인의 장남 윤석호씨를 비롯해 친지와 지인, SBS 사우회 사우 등 4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다한 방송 열

정의 뜻을 기리며 남다른 후배사랑의 따뜻한 정을 회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자리를 함께한 사우는 이웅모 SBS 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차성모, 최광락, 신원수 유용우 박희철 사우 10여명이다.

윤혁기 고문 1주기 추모식 열려

5월 15일 봄철 야유회

5월 15일로 정하고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같이 서울 근교 이동거리가 짧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는 방안과 특별한 야유회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달 운영위원회서는 강

릉 경포대, 태안 천리포, 포천 휴양림을 비롯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슬로우 힐링 1박2일 코스 여행이 거론됐다. 사우회는 사우들의 야유회 장소 선정을 위해 이 달말 까지 사우회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봄으로의 초대



글/최상담 사우

아흔아홉 대관령 옛길

봄은 산 너머 남촌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동쪽에서 봄을 만나는 대관령 옛길로 사우들을 안내하고 싶다. 한때 영동고속도로 구간이기도 했지만 다시 아흔아홉 굽이굽이 고개 길로 환생되어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나는 봄은 색다르다. 동토에서 깨어난 봄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관령 옛길은 고개 중간에 위치한 반정에서 내려가는 코스와 대관령 박물관이나 가마골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내려가는 데는 2시간, 올라가는 데는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쉬엄쉬엄 트레킹하기에 좋은 완만한 길이다. 길 입구 울창한 삼림 길에 들어서서 맑은 숲 향기를 코로 마시고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야생화 군락지를 눈으로 즐길 수 있다. 반정에서 강릉시를 내려다보면 지금 인기리에 방송중인 SBS 드라마 빛의 일기 신사임당이 떠오른다. 신사임당이 한양을 가기위해 어린 울곡의 손을 잡고 이 산길을 오르면서 저 멀리

오죽헌을 바라보며 지금 가면 천정에 언제 오려는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상상된다. 옛길 끝자락에 위치한 박물관을 지나 성산면 구산리 면소재지에 당도하면 즐거운 먹거리가 기다린다. 꿩고기로 만든 상큼한 만둣국, 얼큰하고 구수한 추어탕, 대관령에서 채취한 산나물 비빔밥, 등차림이 다양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원된 옛 주막터에서 황태찌를 안주삼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면 이곳에 잠시 머물러 피로를 푼 피나리뽕집 정수와 큰 꿈을 그리며 한양을 오간 유생 등 옛 선인들의 애환과 사연이 떠오를 것이다. 울분 대관령 비바람캐비 도는 광활한 초원의 양떼 목장도 둘러보고 대관령 정상에서 백두대간 산세를 감상하며 먼로 발치 동해를 바라보면 겨우내 쌓인 짙은 눈이 사라지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사우는 저를 찾아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물론 상담은 무료다.



비진도 산호 빛 봄 바다



글/현일범 사우

자식자랑 마누라자랑 하면 팔복출이고 고향 산호 빛 바다 비진도의 봄으로 초대하고 싶다. 비진도의 아름다운 봄을 표현할 문장력이 없으니 바로 가서 풍광을 느끼시라고 속전속결 1박2일 비전도 여행 코스로 안내 하겠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고속버스로 4시간, 비진도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첫날 통영에서 1박하는 게 좋다.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방을 잡아야 다음날 첫배를 타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통영에서 하루 밤 머물 때 서호시장으로 가서 송어와 도다리 회를 곁들여 소주 한 잔 드시고 입가심으로 도다리 속국을 들이키면 봄 향기에 취해버린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부족하면 2차로 다짜방에 들려 통영의 진짜 회맛을 다시 느끼길 바란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충무김밥, 통영꿀빵, 식수 등을 챙겨 미리 내일을 준비하기 바란다. 비진도는 죄다 눈으로 먹을 수 있는 곳도 많으나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다. 아침 7시 섬으로 떠나는 뱃길에서 감상하는 일출은 온 몸으로 기를 받는 전율이 느껴진다. 배에서 내리면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쌍둥이처럼 닮은 2개의 섬이 모랫길 하나로 이어진 비진도의 새하얀 백사장에서 쪽빛 바다를 바라보면 세상사 지금 무엇이 필요인가? 무념무상으로 마음을 비우면 백세시대를 보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사진 한 장을 찍고 비진도 선유봉 미인전망대를 올라가면 자연의 파노라마가 눈앞으로 다가선다. 선유봉정상 하산 길에 노루여 전망대와 갈치바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비진도에서 오후 3시 배를 타고 다시 통영에 도착하면 밤늦게 고속버스를 탈 생각을 하고 케이بل카를 타고 미륵도에 오르면 통영의 항구와 한려수도 바다 섬 전부를 조망하며 석양을 바라보면 지는 해의 곱결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김경민 사우
WANO 기획단장

신라인(?)이 만난 오딧세이아

'100세 인생'을 넘어 '120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즈음, 인생 후반부를 어디서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잡다한 사회 인연은 정리하고 고요하고 초연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가야할 고향이 있는 분들은 참 복 받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고향 없는 서울 사람에게 는 그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참 절실한 문제이지요. 이곳 경주에서 일 년 살아보니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다행히 구해질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고 오랜 전통 문화의 숨결이 감도는 도시가 바로 경주이기도 하구요, 봄에는 온 천지가 하얗게, 가을엔 온 시내와 인근 산이 울긋불긋 변할 정도로 빛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가 경주이기도 하지요. 더구나 땅 파면 나오는 유물, 유적들 때문에 도시 개발이 거의 안되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역설적

으로 편안한 스카이라인의 이점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분들께가 더할 나위 없는 노후 삶의 근거지가 이곳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베르테르는 목련꽃 아래서 편지를 읽었지만 저는 경주의 벚꽃 아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성경처럼 읽습니다. Amor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중화인 듯, 요즘 이 말 자체를 사랑하게 되네요. 기원전 8세 살이었던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다행히 구해질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고 오랜 전통 문화의 숨결이 감도는 도시가 바로 경주이기도 하구요, 봄에는 온 천지가 하얗게, 가을엔 온 시내와 인근 산이 울긋불긋 변할 정도로 빛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가 경주이기도 하지요. 더구나 땅 파면 나오는 유물, 유적들 때문에 도시 개발이 거의 안되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역설적

는 책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의 세계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황금상자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두 권의 책이 호메로스의 책 두 권이고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대학, 리드 칼리지(Reed College)가 신입생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책이 이 호메로스의 저작 두 권입니다. '이타카, 위대한 인간 오디세우스가 불멸을 약속하는 님프 칼립오스의 유혹을 뒤로한 채 그토록 돌아가려던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니 어디일까요? 호메로스가 <오딧세이아>에서 2800년 전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두 마디 아닌가 싶습니다. 호메로스는 작품 속에서 답도 암시하고 있지요, 요약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필멸하는 가련한 존재이다. 어떤 영웅들도 죽음과 운명에 저항하지 못했다. 엄혹한 운명의 힘 앞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자가 참 영웅이다. 내 운명도 가혹하다. 하나 나는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소명을 완수할 것이다." 오딧세우스가 거친 바다에서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며 내 운명도, 아니 이 짧은 글조차 두서너 없네요. 지금 경주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에서 신라인(?)으로 산지 1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SBS 사우회 사우님들에게 벚꽃이 만개한 경주의 봄을 보내드립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가능한 자주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SBS社友漫評



"다시 힘차게 달리자!"

Y사우의 人倫大事

사우회 이관형 사무처장은 지난 3월 18 토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주말에 폭죽이 있는터라 스마트폰 우는 소리가 달갑지 않았다. "왜 날 밤 시집 보낼려고 하니 마음이 허전해서 전화 하셨나. 아니 뭐라고" 이 처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사우회 단체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곧 바로 이 처장의 스마트 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글쎄 말이야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하지만 날 결혼식은 예정대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인사 먼저 하세요" 언 달아 올리는 전화벨. 이 처장은 똑같은 얘기로 응답했다. 다음 날 Y사우 결혼식에는 많은 사우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사우들은 혼주인 Y사우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무언가 작은 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하객들을 맞이하는 Y사우의 얼굴은 환했지만 어딘가 우수가 깃들어 보였다. 애지중지 키워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의 정한 마음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Y사우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쫓기듯 가족들과 함께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Y사우에게는

울 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계절이 되었다. 큰 딸의 결혼식 하루 전날 부산에 사는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손녀딸이 결혼 한다고 좋아하시며 결혼식 가는 날을 기다렸던 어머니였는데... 긴급 가족회의 끝에 형제들이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루게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모친상을 치러야 하는 Y사우의 심정은 어떠 했을까? 한 날을 사이에 두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인연대사를 두 번 치러야 했던 그는 윤희훈 사우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인동 사우가 자병으로 향년 88세에 별세했다. 故 김 사우는 SBS 기술위원으로 재직시 송신소 구축에 큰 공헌을 했다.

경조사

축하합니다.

강찬웅 장남(2/11)
윤희훈 장녀(3/19)

애도합니다.

김용정 모친상(2/6)
양문규 부부상(2/20)
김기범 부친상(3/17)
윤희훈 모친상(3/18)

회비내신분

연회비(1월~3월)
김광섭 김홍덕 김현태 신영애 우선균
유영민 임영규 조병식 최극락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 회비 1005-001-954097

회비안내

(충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충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 회비 1005-001-954097